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숭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이철희	면담자	정은주		
면담장소	대한공예	면담지원	이혜숙		
면담 일시	2022년 9월 5일	회차	2	시간	1시간14분13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694				
구술 개요	‘대한공예’는 아들 이름을 따서 지었음, 군대 제대 후 울산으로 가서 목재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인천으로 오게 되었음, 여러 목재 회사를 다니다가 대한공예를 열게 되었음, 주 종목은 스탬프 작업, 공간이 작아 작은 제품을 주로 함, 주로 단풍나무를 많이 사용함, 나무를 만지다보니 나만의 것을 하려다가 지금까지 했던 것임.				
주요 색인어	대한, 결혼, 울산, 회사 생활, 스템프 작업, 제품 개발, 공정, 소통, 수입, 나무, 단풍나무, 부모님, 꿈, 노래, 기타, 재능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상호명		▷활동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녹취문
- ‘대한공예’는 아들 이름을 따서 지었음.		
2. 과거이야기		
- 28살에 결혼했음. 57년생임. - 고향은 서울. - 군대 제대 후 울산으로 가서 목재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인천으로 오게 되었음. - 울산에 일했던 회사 이름은 ‘동남 목재’로 기억함. - 여러 목재 회사를 다니다가 대한공예를 열게 되었음. - 처음은 간석동에 있다가 현 자리로 오게 되었음. 숭의동에서는 10년 정도 하고 있음.		
3. 주로 하는 작업		
- 주 종목은 스탬프 작업, 공간이 작아 작은 제품을 주로 함. - 스탬프가 크기는 작아도 공정이 많음. (15회 정도) - 목재로 이용하는 건 다 하심. - 누군가가 주문을 해도 맞춰서 해드리려고 함.		
4. 나무의 종류		
- 지압용 안마기는 뉴질랜드 소나무로 제작. - 당구 큐대는 단풍나무 메이플목. - 나무 수입상이 인천에 주로 많이 있어서 지방에서 많이 옴. - 주로 단풍나무를 많이 사용함. 가벼움.		

- 잘 안보이는 기초적인 공사를 할 때 러시아 소나무를 사용. - 국산 나무가 제일 좋음. 우리나라 소나무가 결이 예쁘고 질감도 좋음.		
5. 어린시절		
- 어릴 땐 공차고 노는 것을 좋아했음. - 나무를 만지다보니 나만의 것을 하려다가 지금까지 했던 것임. - 아버지는 건재 상회를 하셨음. - 원래 꿈은 운동 선수나 연예계 쪽이었음.		